



독일월드컵 원정응원 '남사당'

안성시립남사당 배우들이 풍물단이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독일월드컵 원정응원에 나선다. 사진은 안성남사당전수관 상설공연장에서 벌어진 풍물놀이.

사당놀이 절에서 시작 판염불 합창하며 시주 받아 거리공연문화 '원조'

영화 '왕의 남자'로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안성시립 남사당 배우들이 풍물단이 독일 월드컵 원정 응원에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연예집단인 남사당을 복원해 전승하고 있는 '안성시립남사당 배우들이 풍물단'은 6월 10일 우리 축구 대표팀 공개 훈련장인 레베쿠젠을 시작으로 12~13일 프랑크푸르트, 17~18일에는 라이프치히, 20~21일에는 베를린, 23일에는 하노버에서 우리 가락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토고와 예선 첫 경기를 비롯해 스위스, 프랑스와의 시합에는 우리 교민들과 함께 길거리 응원전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바우덕이' 캐릭터.

■ 영화 '왕의 남자'로 세간의 주목...판염불 선소리산타령으로 명맥 이어
조선 후기 대표적인 민중놀이였던 남사당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는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남사당의 한자를 '寺堂'이라고 쓰는 것에도 무관하지 않다. 민중들의 일상생활을 담았던 가요령에 사당패의 줄타기가 나올 정도이다. 남사당은 여성들로 구성된 사당놀이에 대해 남성들로 구성돼 있기에 붙여진 명칭이다. 원래 사당놀이는 절에서 시작됐다. 사당패 가운데 결립패는 시주를 받기 위해 기예를 선보였다. 스님이 직접 기예를 배워 선보이는 결립승도 존재했다. 재가불자로 이뤄진 사당패들은 큰 저자로 다니며 판염불을 합창하며 시주를 걷어 절에 바쳤다. 조선 후기 불교가 쇠퇴하자 사당패는 타락해 술과 기예를 파는 집단으로 전락했고 남사당으로 대체됐다. 전문기에 집단인 남사당도 여전히 사찰을

근거지로 활동했다. 소멸될 뻔했던 판염불은 선소리산타령(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으로 명맥이 이어졌다. 발전 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은 "결립화창이라고 해서 화심곡이나 고사염불 등을 공연하고 시주를 걷어 사찰중흥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사당패는 절에서 키운 결립승과 전문기에 집단을 활용해 시주를 받았던 결립패, 기예집단인 남사당 등으로 나뉠 수 있다"며 "사당놀이의 한 가지인 솟대놀이 즉 줄타기는 인도에서부터 불교와 함께 전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독일 공연을 떠나는 바우덕이 풍물단의 주인공 바우덕이는 안성 청룡사와 인연이 깊다. 동학혁명에 부모를 잃고 청룡사에서 자랐다는 말이 전해올 정도다. 한국 남사당패에서 유일한 여성 꼭두쇠(우두머리) 바우덕이는 1865년(고종 2년) 경북군 중건 당시 안성 남사당패를 이끌고 기예를 뽑아 흥선대원군에게 정3품 당상관 벼슬에 해당하는 옥관자를 받아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때부터 안성 남사당패는 바우덕이 남사당패로 불린다.

■ 안성 청룡사는 바우덕이 남사당패의 근거지

안성 청룡사는 바우덕이 남사당패의 근거지였다. 당시 사찰제정이 열악했음에도 겨울에 오갈 데 없는 남사당패를 거두었다고 한다. 사찰 건너편에는 남사당마을이 아직도 남아있다. 청룡사와 남사당마을이 있는 이 곳은 불당골이라고 불린다. 바우덕이 남사당패는 청룡사에서 절의 허드렛일을 거드는 불목하니(절에서 밥 짓고 물 길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로 겨울을 냈다. 봄-가을에는 청룡사에서 준 시표를 들고 안성장터를 비롯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회를 팔아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었다. 민요에 "안성 청룡 바우덕이 소고만 들어도 돈 나온다"는 구절이 심심찮게 나올 만큼 명성을 얻었던 대중스타 바우덕이는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폐병으로 요절했다. 줄타기 하다가 떨어져서 병을 얻었다는 설도 전한다. 바우덕이의 시신은 어려서 자랐던 청룡사 부근에 묻혔다. 몇 년 전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묘를 만들기도 했다. 청룡사뿐만 아니라 남사당의 근거지로 밝혀진 경기도 진위, 충남 당진·회덕, 전남 강진·구례, 경남 진양·남해, 황해도 송화·은율 등에서 활동하던 남사당패들은 겨울이면 사찰로 들어가 배려(신참)들에게 기예를 가르치며 겨울을 보냈다. 민속학자 심우성 관장(공주민속극박물관)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겨울에는 목을 굶지 않았던 남사당패들이 지역 사람들을 근거지로 활동했다"며 "황해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남사당패들은 절에서 만든 부적을 팔기도 하면서 기예를 뽐냈다"고 말했다.

글=강지연 기자·사진제공=안성시립남사당 배우들이 풍물단



표충사 갈로탕속의 '줄타기' 모습.



영화 '왕의 남자'에서 장생의 줄타기 장면을 대역한 어름산이(줄타기 고수) 권원태씨(안성시립남사당 배우들이 풍물단).

절에서 겨울 나고
봄 오면 저자거리서
서민 애환 달래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남사당패의 여섯 놀이마당

- 풍물**
-일종의 농악인 인사 곳으로 시작해 돌림박·구·선소리판·당산·벌림·양상치기 등 24 판 내외의 판굿을 돈 다음 상쇠놀이·띠박·구(박구놀이)·징놀이·복놀이·새미받기·채상놀이 등의 순서로 농악을 친다. 쟁가리·복·징·장구·날라리·땡각(승角)의 쟁이(악사)와 뽕고 등을 포함한 최소 24명이 한조를 이룬다. 어린이를 등에 태우는 무동놀이, 상모놀이가 이어진다.
- 버나**
-가족으로 등글고 넓적하게 만든 가족 접시 버나를 영등나무 막대기로 돌리는 묘기이다. 이 놀이의 묘미는 접시 등을 돌리는 사람인 버나잡이와 받는 소리꾼인 매호씨(어릿광대)가 주고받는 재담과 소리에 있다.
- 살판**
-잘하면 살판, 못하면 죽을판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뒤·옆·뒷·두·번개공 등 11가지 순서를 가지고 있다. 살판씨(땅재주꾼)와 매호씨가 쟁이의 장단에 맞추어 재담을 주고받으며 재주를 부린다.
- 어름**
-줄타기 곡으로 얼음 위를 걸듯이 어렵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무대 중앙을 가로지른 외출을 어름산이(줄판)가 건너가며 매호씨와 재담을 주고받는 놀이다. 종류는 앞으로 가기·장단출·거미줄놀이 등 15종의 순서가 있다.
- 덧뵈기**
-탈춤을 뜻하는 덧뵈기는 춤보다는 재담과 연기가 우세한 풍자극으로 미당셋이·샌님잡이·샌님잡이 등 네 마당으로 구성된다.
- 달미**
-남사당놀이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이이다. 인형의 목덜미를 쥐기 때문에 '달미'라고 한다. 대개 두 마당 일곱거리로 박침지마당(박침지유림거리·피조거리·꼭두각시거리·이시미거리), 평안감사마당(매사냥거리·상어거리·절 짓고 하는 거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에게 직접 만든...

산사조청

- 산사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산사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산사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훗이오르지 않는 **산사참죽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혈의 해소, 신장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사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죽민건강을 세배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몰렛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 054)372-3166**
- 입금처: 농협 727077-52-056761(현송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사조청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던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우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기초과정 ● 맥진반 ● 사암침술반 ● 즉효요법반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비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2006. 6. 7 (수·목요일 주·야간반)
- 토·일요일: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1개월 완성)
-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으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정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 개강: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서울: 중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 문의: 02)747-9136, 011-307-2975

수제화로 제작 **만행화** 상표등록: 614981호

만행화

■ 소재특징: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망사 단화

폴크 슈팅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 가격: 6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기능성 지압 깔창

발바닥 무릎방지

- 규격: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20,000원

총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시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항공 실리온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애월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의 발관절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원하여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02)927-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지민)

※ 보시 하실 분상담 환영